

삼성·SK, 엔비디아 초기 HBM4 공급 ‘양강체제’ 힘 받아

마이크론 HBM4 재설계 가능성

마이크론, HBM4 제품 지연 전망
삼성전자, 미세공정 등 설계 개선
SK하이닉스, M15X 펌 장비 반입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인 ‘HBM4’ 재설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마이크론이 후발 주자로 HBM4 경쟁에 뛰어들며 시장에 가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HBM4 성능 기준을 높이면서 마이크론이 해당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마이크론이 HBM4에서 초당 11기가비트(Gbps)의 동작속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양호한 수율이나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내부 재설계를 진행하면서 엔비디아향 HBM4 출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규 펌 ‘M15X’

/SK하이닉스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이에 마이크론이 HBM4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2분기 HBM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에 비해 시장 점유율 및 차세대 기술 측면에서는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4 공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양사가 엔비디아 초기 HBM4 물량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사는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급증으로 내년도 고객사와 납품협의를 끝내고 D램과 낸드를 완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완료한 만큼 엔비디아향 공급 시기 및 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했는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HBM4가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완판 발표가 엔비디아 납품 협의를 마무리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당시 “AI 산업을 위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도 마이크론의 HBM4 시장 진입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메모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HBM4 공급망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황 CEO의 발언이 차세대 HBM4 확보 과정에서 마이크론을 당장 주요 공급망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HBM4 시장 진입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직전 세대 제품인 HBM3E까지 기술적 이슈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려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HBM3E에 적용되는 10나노미터(nm)급 6세대(1c) D램 기술을 도입하는 등 미세한 공정을 채택해 설계 개선에 뛰어 들었다. SK하이닉스 또한 HBM4 등 차세대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M15X 펌에 첫 장비를 반입하며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국내 업체들도 HBM을 비롯해 메모리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지원하더라도 당장 공급 물량이 집중되긴 어렵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앞서 있어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AI 거품론’ 쓰나미… “단기 조정 후 강세장 재개될 것”

‘사천피’ 붕괴 위기

美 기술주 급락… 韓 증시 ‘롤러코스터’
전문가들 내달 초중순부터 강세 전망

“불안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5일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한 시장 분위기다. 국내 증시가 장 중 등락 폭만 200포인트 가까운 아찔한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한 때 6.12% 폭락한 3869.36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장 중 5.91%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을 터치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인 것은 간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일며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 개인 2.4조 순매수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학습 효과 때문일까. 이날 대폭락장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식 게시판은 뜨거웠다. 한 30대 직장인 투자자는 “이번 폭락장이 ‘겨울 휴가비 벌 찬스’라고 생각했다”며 “단독방에서도 ‘지금 사라!’는 글이 폭주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락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행렬에 뛰어들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이날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이달 첫 거래일인 지난 3일에는 8861

억원, 4일에는 3조22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지난달 4조6170억원 순매도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반면 지난 10월 한달 동안 코스피를 5조3447억원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내내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3일과 4일 각각 8869억원, 2조998억원 순매도한 데 이어 5일에는 2조6089억원 팔아치웠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시장 내에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풍부한 대기자금이 존재한다”며 “현재 투자자 예약금이 8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 “이번 조정 단기적”

시장이 개인들의 바람대로 돌아갈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인공지능(AI) 고평가는

란과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등을 소화한 뒤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조정 국면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QT) 종료에 예정돼 있어 유동성 축소보다는 확대 추세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양호해 한국 증시의 견조한 이익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11월부터 12월까지 매물을 소화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외국인 매도

세는 차익실현으로 해석하면 된다.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AI 종목들에 대한 버블 논란도 외국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 역시 “12월 초 중순부터 다시 강세장이 재개될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과거 1998~1999년, 2009~2011년, 2020~2021년 등 3번의 강세장 때에도 평균적으로 강세 지속일 200일 부근에서 단기조정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미 연방정부 섰다운 장기화가 맞물리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이익 사이클과 정책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이번 흐름은 추세 전환이 아닌, 과열 구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평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16일까지 후보 공개모집… ‘보안 리스크 해소·AI 성장 전략’ 과제

김영섭 KT 대표 연임 포기

연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 예정

김영섭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3년 만에 KT가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내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새 KT 대표는 현재 맞닥뜨린 펌토셀(소형기지국)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인한 내부 혼란과 외부 대응을 수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축인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KT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KT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을



광화문 KT 사옥 전경.

거쳐 연내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 후 2026년 3월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섭 현 대표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 공모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상반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1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특히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9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펌토셀(소형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 관리 부실과 누장 대응으로 비판이 일었다. 급기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해킹 정황을 통보하고 자진 신고를 권고했음에도, KT는 “해킹 정황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엔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퇴진론이 불붙었다.

현재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 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변호이동 순감 규모가 한달 새 두 배로 늘었고,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까지 진행되면서 피해 복구 비용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CT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KT는 지난해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후 올해 3월 ‘AX 토틸 서비스 프로바더’로 도약하겠다는 AI 전환(AX)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선언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AI/IT 매출 성장세와 전체 매출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다. KT의 지난 1분기 AI/IT 매출은 2800억원 전년 동기 2540억원 대비 10.2% 성장했고, 2분기 3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2790억원 대비 13.8% 성장했다. 그럼에도 전체 매출 비중 내에서는 7~8% 구간에 머무는 수준이며, 시장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유·무선 서비스 사업 매출 비중이 큰 상태다.

여기에 더해 사상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낸 2분기 실적은 SKT 해킹 사고로 인한 반사이익과 1월 준공을 마친 서울 광진구 롯데이스트폴에서 발생한 3900억원 수준의 분양 이익이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획기적인 실적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AI/IT 사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이번 대표 교체를 계기로 내부 위기 관리 역량과 AI 중심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검증받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안 리스크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중장기적으로는 AI·클라우드 등 신사업 수익 구조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새 대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